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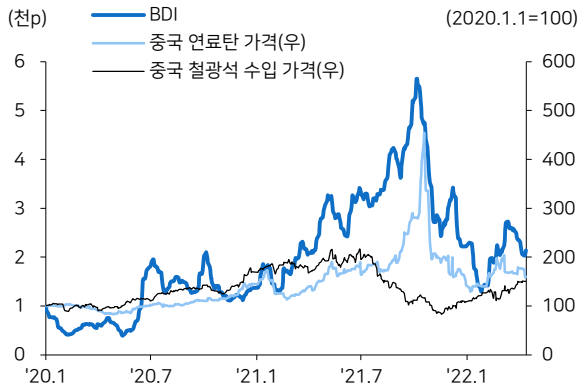


2022. 4. 15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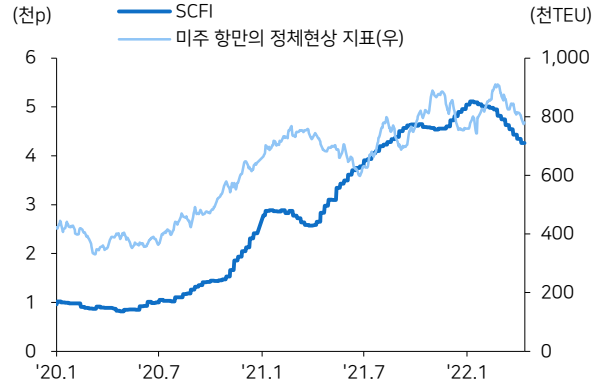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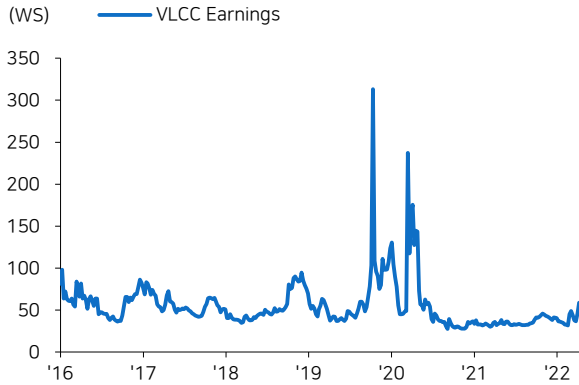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37.0p(+6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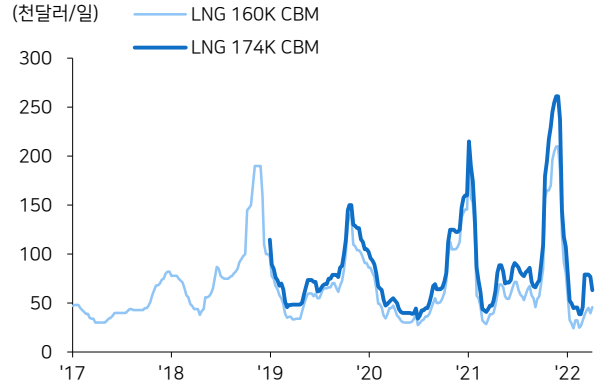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63.7(-85.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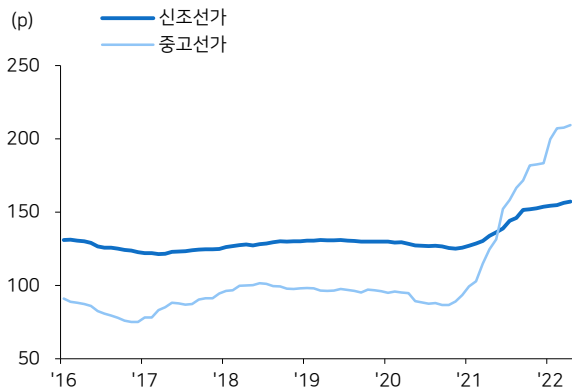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8.9(+13.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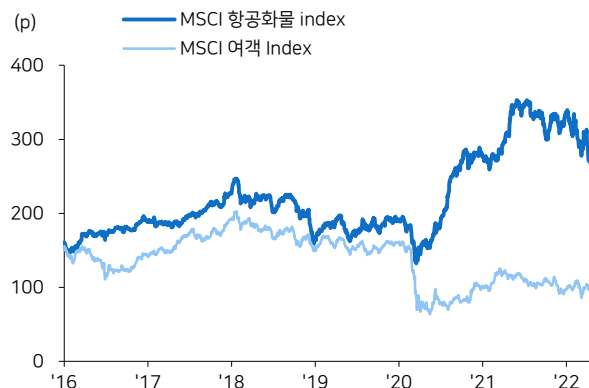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6.0p(+6.5p WoW) 63.3p(-1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2p(-0.1p WoW) 210.4p(+1.0p WoW)



항공시장 지표 268.2p(-0.5p DoD) 103.8p(+2.7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몽골 운수권 배분, 제주항공·티웨이 웃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몽골 운수권을 받았다고 보도됨. 그간 대형항공사가 독점해왔는데, LCC가 받은 것은 약 30년만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3회, 대한항공은 6회에서 7회로, 아시아나항공은 3회에서 4회로 조정됨. LCC가 취항하며 항공권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함. (조선Biz)

북미서안항만 물동량 6개월 만에 반등...LA·롱비치항 적체도 완화

북미서안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이 6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짐. 북미 서안 7개 항만의 2022년 2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월대비 5% 늘어난 250만TEU로 집계됨. LA와 롱비치항의 평균 선박대기시간이 크게 개선됐다고 알려짐. 두 항만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이 50개 미만으로 1월초 대비 절반가까이 감소함. (코리아슈핑가제트)

After buying cheap Russian oil, India is now setting sights on its coal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락한 러시아 석유를 대량 구매한 인도가 러시아산 석탄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인도 철강장관은 13일 뉴델리 회의에서 러시아산 코크스 석탄을 수입하려 하고 있고, 이미 450만톤의 석탄을 수입했다고 밝힘. 지난주에는 러시아산 코크스 석탄 수입량을 두 배 늘릴 계획으로 밝힌 바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의 행보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타격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분석함. (CNBC)

Self-sanctioning pushes aframax rates to \$350,000 per day from Russia

러시아산 원유를 실을 선박이 없어 Primorsk에서 출발하는 Aframax운임이 350,000달러/일로 급등했다고 보도됨. 영국 브로커에 따르면 주요 Baltic Sea port에서는 351,902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연초 이후 평균인 107,000달러와 비교되는 금액임. 한편, 지중해 항로 Aframax는 운임이 65,000달러/일에 형성되어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삼호중공업, 6천억대 러시아 프로젝트 보류 검토

현대삼호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로부터 수주한 LNG선 3척의 건조를 연기 또는 리세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의 국제결제망(SWIFT) 퇴출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함. 해당 LNG선 3척의 수주금액은 6천억원이 넘는 수준인데, 1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2척은 설계 단계로 알려짐. 건조가 시작된 1척은 대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선주에 되파는 '리세일' 가능성도 제기됨. (한국경제tv)

삼성중공업, 러 쇄빙선 2척 인도

삼성중공업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발주 쇄빙선을 최근 인도하는 중이며, 결제대금도 지급받았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가 2019년 11월 발주한 Aframax급 쇄빙 원유운반선임. 두 척 중 한 척은 기 인도됨. 선가는 1.6억달러 규모였음. 한편, 현재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80.5억달러로 알려짐. (한국경제tv)